

종교교육학연구 제10권. pp. 159~17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원불교

박 은 주
(원불교교육연구소)

<요약>

원불교는 한국전통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유·불·도 삼교의 토양아래 출발하였다. 소태산은 그 중 불법을 주체 삼아 원불교 사상을 전개하였으나 유교로부터 無父無君이라 비판받았던 불교의 폐단을 혁신하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정을 중시하였다. 원불교의 가정교육에는 嚴父慈母, 태교의 중시, 예의 범절의 강조 등 전통가정교육이 적극 수용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가정교육이 가지는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그 형식은 시대를 따라 변화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사상을 전개하였다. 즉 신분질서를 중시하고 남녀차별, 적서차별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가정교육의 가부장제 유지의 틀을 깨고 대신 일원상의 진리가 각자에게 삶아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누구나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숙한 인격으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불교의 가정교육의 방법은 심교, 행교, 언교, 업교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진실하고 공심있고 덕있는 사람으로 기르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 원불교, 소태산, 심교, 행교, 언교, 업교

Traditional Education in Korean Family and Won-Buddhism

Park, Eun-ju
(Won Buddhism studies Institute)

<Abstract>

Sotaesan-the founder of Won-Buddhism-has intergrated the doctrines of korean traditional

thoughts-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Especially he thought Buddha is really sage of all sages. So, he regarded the Buddha as the antecedent of his Law.

But, he pointed that the Buddhism of the past had several problems. For example, its institutions were organized mainly in terms of monastic orders. Thus, anyone who wished to be a true buddhist had to ignore one'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family and occupation in the secular life.

However, Sotaesan thought of family as the essential element of society. It means that he accepted Confucianism and the way of korean traditional home education, affectionate motherhood and strict fatherhood, fetus education and etiquette.

However, he did innovate them beyond simple acceptance of traditional home education.

Sotaesan said that the spirit of traditional home education should be maintained but the way of practice should be changed with the times.

He suggested four ways through which parents teach children: the mind, action, word and Strict Dignity. With this, he wanted to lead the children to be the whole man with warmth and charity.

Key words: Won-Buddhism, Sotaesan(the founder of Won-Buddhism), home education of Won-Buddhism

I.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들 중 76.4%가 가출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고 가출 충동을 느끼는 주요 이유는 60.2%가 가정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가 1998년 10월 7~31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교생 2천3백74명(남 1천59명, 여 1천3백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가출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가출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76.4%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비해, 가출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은 23.6%에 지나지 않았다. 가출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상황은 부모와의 갈등이 49.9%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공부에 대한 부담(11.4%),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8.6%), 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6.2%), 부모의 불화(5.3%), 부모의 폭행과 학대(2.5%), 가정경제의 어려움(2.5%)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0.2%가 부모와의 갈등이나 불화 등 가정환경 때문에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가정이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

한 적극적 대처가 부족한 가정교육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발단이 되고 있다는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교육 부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통 가정교육방법이 가지는 문제인가? 아니면 전통가정교육을 하지 못하는 부모, 혹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환경의 문제인가?

본 논문에서는 현 시대에 적합한 가정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바라보는 원불교적 입장은 무엇이며 전통가정교육의 대안으로서 원불교가 제시하는 가정교육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원불교의 교의에서 본 가정교육

少太山 朴重彬 大宗師(1891-1943)에 의해 전남 영광에서 창시된 원불교는 한국 전통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儒·佛·道 三敎의 토양아래 출발하였다. 소태산은 이러한 토양으로써의 儒佛道 三敎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佛家에서는 宇宙 萬有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生滅 없는 진리와 因果 報應의 이치를 가르쳐 轉迷開悟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儒家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서 三綱·五倫과 仁·義·禮·智를 가르쳐 修齊治平의 길을 주로 밝히셨으며, 仙家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서 養性하는 방법을 가르쳐 清靜無爲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生靈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유·불·선 三敎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마는,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연구·취사의 一圓化와 또는 靈肉雙全·理事並行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 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¹⁾

특히 소태산은 “불법은 무상대도라 그 제도와 방편이 호대하다”²⁾며 “일체 중생의 慧福 두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³⁾이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소태산은 근본적 진리로서의 불법과 당시의 하나의 교파로서의 불교를 구분하여 재래의 불교와 미래의 불교를 나누어 불교를 혁신하고 있다. 과거의 불교는 그

1) 『대종경』, 서품1장.

2) 『원불교정전』, 제1 총서편 제2장, 교법의 총설.

3) 『대종경』, 서품15장.

제도가 출세간(出世間) 생활하는 승려를 본위 하여 조직이 되었기에,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교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의 많은 생령이 다 불은(佛恩)을 입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한 대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혁신한 불교로서의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士·農·工·商 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在家·出家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어야 한다⁴⁾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태산의 불교혁신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佛法是生活 生活是佛法’이라는 표어에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은 在家와 出家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며, 보살과 증생이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다⁵⁾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표어이다. 이러한 소태산의 불교혁신 사상은 無父無君이라며 유교로부터 강하게 배척받던 불교의 폐단을 혁신하려 한 것이다.

불교 혁신의 사상은 원불교 교리의 중요한 틀을 형성하는 愿사상에도 반영이 되어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의 하나로 父母恩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은혜에 報恩하는 것이 신앙의 한 방법으로 되어있다.

소태산이 人道上 要法을 주체 삼아 초월적 신비적 신통력의 추구를 크게 경계하며⁶⁾ 참 도인은 사람의 무리 중에서 사람의 道를 행할 따름이라고⁷⁾ 역설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사람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사는 사회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원불교 사상이 儒家的 사고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불교 가정교육⁸⁾은 바로 『원불교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最初法語’의 ‘齊家の 要

4) 『대종경』, 서품15장.

5)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4장.

6) 『대종경』, 수행품41장.

7) 『대종경』, 인도품59장.

8) 원불교 가정관과 제가의 요법에 대한 고찰 등을 선행연구의 업적에 의지하여 여기서는 자세한

法⁹⁾을 통하여 교의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修身이 앞서 진행되고 治國과 平天下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內聖外王을 이상형으로 하는 유교적 인간관과 형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III. 전통가정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전통사회의 가정 교육의 내용은 주로 유교적인 가치관에 근거를 둔 덕목들로서 이미 그 내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감에 근거한 주종관계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는 또한 엄격함과 부드러움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자녀를 이끌어 왔다. 요컨대 嚴父慈母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가족 내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의 패턴을 경험함으로써 후에 보다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도덕적인 가치관 교육은 물론 나아가서는 인간형성의 바탕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 가정교육의 방법은 소태산에게 적극 수용되었다. 소태산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 되나니’¹⁰⁾라 하여, 가정을 근본으로 하여 국가로 나아가는 『大學』의 八條目에서 제시한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사이의 본래적 내지 확장적 관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¹¹⁾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가정의 嚴父와 慈母로 비유하여서 가정의 엄부와 자모가 서로 조화를 이루듯 정치와 종교도 또한 이러한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¹²⁾고 설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송순, 원불교 가정관, 《원불교사상시론》 3, 1998 ; 한양선, 원불교 가정교육에 관한 일연구, 《원불교사상》 11·12, 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참고)

9) 齊家の 요법

1.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2. 호주는 건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 하송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3. 家養이 서고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내면으로 심리 밝혀 주는 道德의 師友가 있으며, 외면으로는 규칙을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5.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10) 『대종경』, 인도품42장.

11) 금장태, 「한국유교사상과 소태산사상」, 『소태산대종사탄생백주년기념문집: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1).

12) 『대종경』, 교의품38장.

함으로써 전통가정교육에서 진행되었던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가정교육에서 가정교육의 시발점을 胎敎로부터 설정하고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일정한 수칙을 지키도록 가르친 면을 적극 수용하였다.

대종사 임신한 부인을 대하시면 매양 “모진 마음을 내지 말며,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모진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시고 특히 살생을 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胎兒는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靈識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 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나니라.¹³⁾

또한 가장의 지도력 강조, 가정내의 여러 인간관계에서의 예의 범절 중시, 몸소 실천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 등은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상당히 일치하는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가정교육의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그 형식은 시대를 따라 변화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통 가정의 특징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家父長的 秩序 維持를 위한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는 존재로서 가정의 운용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에 절대 복종하였다. 또한 이와 연관되어 가정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상하 신분 구별의 철저한 종적 관계로 이루어졌다. 즉 父子간 長幼간 男女간에 분명한 서열이 정해져 있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父子간의 연계로써 이러한 父子 관계가 가족의 중심을 이루고 가계의 계승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夫婦 관계는 그 아래 종속되었다. 따라서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 시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모든 개인들은 가정 내에서의 그 위치와 역할로서 그 정체가 파악되었으며 가정은 개인이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항상 개인보다는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집단의식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었다. 따라서 개인은 독립적인 개체로서가 아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였으며 개인의 책임의식 또한 가정 혹은 가문에 대한 책임 의식에서 출발하였다.¹⁴⁾

이러한 가부장적 체제는 유교의 신분질서인 적서 남녀 노소 등의 차별을 낳았으며 이러한 차별이 극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소태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가져오는 차별적이며 二分法적인 사고방식을 一圓相의 眞理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인

13) 『대종경』, 인도품44장.

14) 한양선, 원불교 가정교육에 관한 일연구,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11·12, 1987.

一圓相의 眞理는 宇宙萬有의 本源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 속의 모든 존재들은 다 一圓의 眞理로부터 由來하였다는 것이다. 우주 만유로부터 유래한 모든 존재는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平等 無差別하다. 따라서 거기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존재하는 차별의 양상이 모두 사라진 평등한 존재로 각각의 가족 구성원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소태산은 전통적인 가정이 가지는 폐단으로 依賴하는 병과 家族主義를 들고 있다.

과거에 부모·형제·부부·자녀·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먹거나,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려고 하는 타력생활의 조목을 지적하고 또한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社交)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마는 일동 일정에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¹⁵⁾ 등은 없어져야 할 병폐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에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않으며, 여자도 인류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아서 물질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같이 분급하여 주며, 또한 교육도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⁶⁾

그리고,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有産者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등, 家門만을 중시하여 오직 교육을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국한하는 것을 큰 폐단으로 지적하였다.¹⁷⁾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확장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줌으로써 교육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소태산은 교육기회의 균등으로 교육격차를 줄임으로써 선천적 빈부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대신 지식의 유무에 의한 구별을 통하여 어느 방면이든지 그 방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 요즘말로 하면 전문가를 인정한 것이다.

15) 『정전』, 제2 교의편 제3장 四要.

16) 『정전』, 제2교의편 제3장 사요 제1절 자력양성.

17) 『정전』, 제2 교의편 제3장 사요 제3절 타자녀교육.

원불교는 전통가정교육에서 중시되는 예절교육을 또한 중요시한다. 사람으로서 만일 예가 없고 보면 최령의 가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공중 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¹⁸⁾이라며 예절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예법이 시대의 변천과 국토의 구분에 따라서, 과거에는 적합하던 예법이 현재에 와서는 혹 적합하지 못한 수가 있고, 저 나라에는 적절한 예법이 이 나라에는 혹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 번잡하거나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게 형식에 흐르고 外華를 꾸미는 것 등은 禮의 근본을 놓치는 것이기에 과감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널리 공경하고 매양 겸양하고, 計較하지 않는 禮의 근본정신을 시대에 살려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태산의 뜻은 유교적 학문배경을 지니고 소태산의 뒤를 이어 2대 종법사에 오른 鼎山 宋奎(1900-1962)에 의해 잘 계승되고 있는데, 그는 전통가정교육의 중요한 덕목이었던 忠·孝·烈과 五倫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전통윤리의 대의를 시대에 맞게 살려내고 있다.

忠이라 함은 가운데 마음이 곧 충이니, 內外心이 없는 곧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이름이니라. 사람 사람이 다 이 참된 마음으로써 서로 교제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국가에 봉사하며 어느 직장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상 邪없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모두 이 충의 활용 아님이 없다.¹⁹⁾

孝라 함은 무슨 일이나 報恩의 道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하나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범물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父母恩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다.²⁰⁾

烈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그 지조를 잘 지키는 것은 다 열에 속하나니,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지조를 중히 아는 것이 여자가 정조를 중히 아는 것과 같은 까닭이라, 여자의 신분으로 그 정조를 중히 알지 않는 이가 다른 조행에 얼마나 성의를 내리요. 그러므로, 열의 실행은 남녀노소간에 여자의 정조로써 비롯하여 천만 경우에 각각 그 지조를 잃지 않는 것이다.²¹⁾

또한 五倫을 설명함에도 “五倫은 동양 윤리의 도덕 표준으로서 가정 사회 국가의 모든 규범이 이에 근본하여 세워져 있던 것이나, 근래에 와서 이 법이 해이해 지고 실천의 능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이를 시대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부자유친(父子有

18) 『원불교 예전』, 제1총서편.

19) 『정산종사법어』, 경의편58장.

20) 『정산종사법어』, 경의편59장.

21) 『정산종사법어』, 경의편60장.

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을 “부모와 자녀는 친함이 있으며, 위와 아래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화합함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서가 있으며, 동포와 동포는 신의가 있으라”로 함이 그 법의 본의를 살려서 前聖의 뜻을 원만히 이룩하는 길”²²⁾이라고 밝힘으로써 대의를 시대에 맞게 더욱 드러내고 있다.

IV. 원불교의 가정교육

1. 원불교 가정교육의 목적

21세기는 지식이 이끄는 사회라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한다.²³⁾ 이런 사회에서 지식교육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만큼 도덕이나 인성교육은 부채 현상을 낳기 마련이다. 오늘날 가정교육의 문제는 바로 경쟁력과 인간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정산 송규는 名大實小 後無可觀 最後勝利 實力爲上이라고 하였다. 풀이하면 ‘이름만 크고 실이 작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위가 된다는 것으로²⁴⁾ 실력이 최후승리의 조건이 된다고 강조하며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실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산은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 있음이요, 세째 덕 있음²⁵⁾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은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불교의 가정교육의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 진실함

소태산은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博覽博識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는

22)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62장.

23) Peter F. Drucker, 이재규 역, 『21세기 지식경영』,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9).

24)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33.

25)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다'26)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치는 것27)이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소태산은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본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28)고 하였다. 또한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며29)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기30) 때문에 진실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안으로 마음을 중심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道學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科學을 발전시켜야 靈肉이 雙全하고 内外가 兼全하여 결함 없는 세상31)이 된다는 것이다.

2) 公心

공심은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기주의를 벗어나 어느 방면으로든지 대중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소태산은 사회의 병폐를 돈의 병, 원망의 병, 의뢰의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모르는 병, 공익심이 없는 병32)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과거 수 천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심하게 굳어져서 남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일시적 어떠한 명예에 끌려서 公衆事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다시 私心의 발동으로 그 일을 실패 중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공익 기관이 거의 폐쇄하는 현상인 ‘公益心 없는 병’을 치료해야하는 큰 병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산 송규는 ‘인지가 미개하고 界限이 편협한 시대에는 개인만을 본위로 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한 가족을 본위로 하는 가족주의나, 한 단체 한 사회를 본위로 하는 단체주의나, 한 국가를 본위로 하는 국가주의가 각각 그 시대와 국한 안에서 인심을 지배하였고, 아직도 그 여풍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불보살 성현들은 일찍부터 이 모든 국한을 초월하여 세계를 본위로 하는 큰 정신을 주로 고취하시었나니,

26) 『대종경』, 교의품30장.

27) 『대종경』, 교의품29장.

28) 『대종경』, 요훈품1장.

29) 『대종경』, 요훈품3장.

30) 『대종경』, 요훈품4장.

31) 『대종경』, 교의품31장.

32) 『대종경』, 교의품34장.

이른 바 大慈 大悲가 세계주의며, 仁義의 정신이 세계주의며, 博愛의 정신이 세계주의라, 이 모든 성인들은 천하를 일가로 보고 만민을 한 권속으로 삼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구제 받을 대 도덕을 제창하시었으며, 특히 불교에서는 세계와 인류 뿐 아니라 시방 세계 육도 사생을 다 같이 본위로 하는 대 정신을 크게 창도 하시었나니, 곧 세계주의의 극치라 할 것³³⁾이라 하였다.

과거와 같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와 남을 나누어 보는 마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소태산의 사상에 의하면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면서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恩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씨랜드 화재 참사로 아들을 잃은 전 국가대표 하키선수는 인천화재 참사로 무고한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시간을 앞당겨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공익심 없는 병으로 빚어진 참사에 나와 나의 가족이 항상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이런 참사를 계속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을 위하는 마음은 진심과 더불어 원불교의 자녀교육을 통하여 갖추어 져야 할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3) 德 있음

덕(德)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恩惠)가 나타나는 것을 이룸이니, 하늘이 道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道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道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道를 따라 천만 가지 德이 화한다³⁴⁾고 소태산은 밝히고 있다.

정산 송규는 ‘덕은 따스한 것이니 자주 스스로 따스한 기운을 내도록 노력하여서, 땅이 따스한 덕이 있어서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³⁵⁾ 또한 정산은 ‘德은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를 떠나 일체 생명을 한 몸으로 알고 포용하기에 큰 덕이라 하는 것으로, 사람의 耳目口鼻와 手足은 다 각각 재주가 있어서 활동하나 몸에 의지해야 사는 것이니, 설혹 이 가운데 하나 둘이 없어져도 살 수 있으나 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耳目口鼻는 재주와 같고 몸은 德과 같은 것이니 큰 덕을 갖춘 인물이 되라’고 하였다.³⁶⁾

그러나 덕이 있다는 것은 無能하거나 是非에 어두운 것이 덕이 아니라 참다운 덕은

33) 『정산종사법어』, 도운편33장.

34) 『대종경』, 인도품1장.

35) 박정훈, 『한울안 안이치에』,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93).

36) 박정훈, 앞의 글.

思量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으로써 밝을 자리에 능히 밝고 어둠 자리에 능히 어두워야 하는 것³⁷⁾이라 하여 또렷한 은혜로서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산 송규는 새道運은 和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수니,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좀 어리석은 듯 못하고 너그럽고 덕기가 있어서 남과 잘 和同하면 성공이 있을 것ियो, 너무 약삭빠르고 경위지고 각박하고 막된 티가 있어서 남과 자주 상충하면 大小事간에 이루기가 어려울리라고 하였다. 이는 시대적으로 과거 시대에는 상극되는 복마(伏魔)의 도로써 세상 일을 할 수도 있었으나, 미래시대에는 상생하는 해마(解魔)의 도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하니, 이는 천지의 대운이 해원 상생(解冤相生)의 시기에 이른 까닭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하면 내가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³⁸⁾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지식위주의 교육의 병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있다. 그리고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의 영향을 받아 성적에 의해 가정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고 학교에서의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에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기주의와 경쟁심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성장하였기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며 평화를 이루기 어렵다. 주위의 인연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갈등이 깊어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결국 증오심과 반항감을 감추지 못하여 폭력적으로 탈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근본 되는 기술은 人和하는 기술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는 것으로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자녀교육의 방법과 내용

소태산 대종사는 자녀를 가르치는 네 가지 법으로 心敎와 行敎와 言敎와 嚴敎의 四敎法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³⁹⁾고 하였다.

1) 心敎

심교는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

37) 『정산종사법어』, 공도편44장.

38) 『정산종사법어』, 공도편44장.

39) 『대종경』, 인도품45장.

금 먼저 그 마음을 體받게 하는 것이다. 심교는 가정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마음을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서 가정의 종교적 분위기를 진작시켜 자녀로 하여금 이를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교육에 있어 종교신앙은 중요하고 그것이 인간의 성장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정당한 신앙심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신앙심이 없으면 자라는 도중에 다른 외경의 유혹을 받기가 쉽다’⁴⁰⁾며 심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2) 行教

행교는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체 받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교는 네 가지 교육법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바이다. 말없이 숭선 수범하는 것은 말없는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報恩을 하면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만일 부모에게 배운을 한다면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양화를 끼칠 것’이라는 『원불교정전』 ‘부모배은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자신이 먼저 上奉下率의 道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기타 무슨 일이 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녀를 지도할 위신이 없게 된다’⁴¹⁾고 하였다.

3) 言教

언교는 매양 佛菩薩 聖賢들과 偉人 達士들의 아름다운 말이나 선행을 많이 일러주어 그것을 기억하게 하며 모든 사리를 순수히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를 통한 모델링 효과는 때로 부모가 아닌 다른 인물들로 전이될 필요가 있다. 이때 역사상 존경받는 위인들의 생애를 통한 교훈을 말로 일러줌으로써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성취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대화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를 도모하여 가권이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법이다.

언교의 구체적 방법은 ‘모든 언약에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신용을 잃고 보면 그 자녀에게 철저한 령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남의

40) 『대종경』, 인도품46장.

41) 『대종경』, 실시품21장.

악평이나 화답을 금해야 할 것이니 만일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자연 경박한 습성이 커나서 口禍의 문이 열리게 된다'⁴²⁾고 하여 신용에 바탕 한 교육과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악평과 화답을 금하는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4) 嚴敎

엄교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엄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라고 하였다.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면 그 가운데 위엄이 서는 것이지만 만일 억지로 위엄만 부린다면 이것 역시 소용없게 된다. 권위나 위엄을 위에서 아래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받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교의 구체적 방법은 '言動이 근엄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부모를 무난하게 아는 때에는 그 자녀를 정당한 규율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친애를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근엄하기만 하고 친애하는 정이 건네지 아니하면 그 자녀 진정으로 감화하지 못할 것'⁴³⁾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상벌 하는 법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잘하므로 따로 상벌을 쓰지 아니하시는 근기요, 둘째는 다 잘하는 가운데 혹 잘못이 있으므로 조그마한 흠이라도 없게 하기 위하여 상은 놓고 벌만 내리시는 근기요, 셋째는 잘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으므로 상벌을 겸용하시는 근기요, 넷째는 잘못 하는 것이 많은 가운데 혹 잘하는 것이 있으므로 자그마치 잘하는 것이라도 찾아서 그 마음을 살려내기 위하여 벌은 놓고 상만 내리시는 근기요, 다섯째는 모든 것을 다 잘 못하므로 상벌을 놓아 버리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근기⁴⁴⁾의 다섯 가지이다.

3. 원불교 가정교육의 특징

1) 가정개념의 확대

원불교 가정교육은 혈연중심으로 출발한 가정의 개념을 확대하여 한 울안 한 가족이라는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을 모아 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각자 각자가 그 가정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면 국가는 따라서 잘 다

42) 『대종경』, 인도품46장.

43) 『대종경』, 인도품46장.

44) 『대종경』, 실시품38장.

스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가정교육은 가족주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다시 말하면 公道에 헌신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데서 公家에 연결되고 가정교육은 바로 公家를 위하는 公心을 기르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의 가정교육은 전통적 가정교육이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음에 비하여, 大我의 장으로서의 가정을 주장함으로써 오늘의 민주시민 사회에 대응한 보다 발전된 가정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사상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사람다운 삶이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목적중의 하나로 공심을 기르는 것 다시 말하면 어느 방면으로든지 대중에게 유익을 주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2) 知恩報恩 사상 강조

원불교의 가정교육은 전통가정교육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된 忠孝烈과 五倫 등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전통가정교육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남녀 차별이나 반상의 차별로 왜곡되어 전개되어 온 폐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덕목인 효를 강조하면서도 효의 의미를 확대하여 자신의 부모에게만 한정하여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무자력할 때 부모에게 은혜 입은 것을 확대하여 모든 무자력한 사람에게 그 보은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불교의 가정교육에서 강조하는 효는 知恩報恩 사상에 입각하여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감사 보은하는 삶의 자세와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그 정신을 살리고 있다.

3) 處處佛像 事事佛供의 실천을 위한 예절 교육

원불교의 가정교육은 전통가정교육에서 중시되는 예절교육을 또한 중요시하여 冠婚喪祭 등의 의례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예법이 현재에 와서는 혹 적합하지 못하거나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게 형식이나 외화로 흐르는 것을 혁신하여 예의 근본을 놓치지 않는 예절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도 차별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 다같이 불성을 가진 존재로 절대적 존재이나 그러나 남녀와 노소에 따라 대하는 형식의 구별을 두는 것이 예이며, 또한 위로는 공경하는 마음을 아래로는 사랑하며 지도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예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예란 忠의 확대 즉,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운데 마음-진실-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는 본래 마음에 근거해서 모두가 나에게 죄주고 복을 주는 직접적인 권능이 있음을 알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부처님을 대하는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이다. 예란 이처럼 안으로 진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만일 예가 없고 보면 최령의 가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뿐만아니라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예법을 정하는 것이 인류생활에 중요한 일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⁵⁾

4) 科學教育과 道學教育의 並行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물질문명의 중시와 그로 인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빚어낸 결과는 이기주의적 인간성 형성이라는 폐단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물질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물질문명은 결국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마음을 바로 쓰는 도덕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원불교의 가정교육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소태산은 家長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을 준비함으로써 가정을 이끌어갈 물질의 경제력 정신의 자주력을 두루 갖추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內面으로 道德을 밝혀주는 도덕적 師友를 두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바른 종교의 신앙에 의거하여 바른 판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교에만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으로는 정치에 복종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교육이 없는 종교교육은 손과 발이 없는 머리에 불과할 것이요, 종교교육이 없는 과학교육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하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문명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종교를 신앙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한국전통가정교육과 원불교라는 제목아래 원불교의 가정교육에 대하여 살

45) 『원불교예전』, 총서편.

펴보았다. 원불교는 한국전통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유·불·도 삼교의 토양아래 출발하였다. 소태산은 그 중 불법을 주체 삼아 원불교 사상을 전개하였으나 유교로부터 無父無君이라 비판받았던 불교의 폐단을 혁신하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정을 중시하였다. 원불교의 가정교육에는 嚴父慈母, 태교의 중시, 예의 범절의 강조 등 전통가정교육이 적극 수용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가정교육이 가지는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그 형식은 시대를 따라 변화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사상을 전개하였다. 즉 신분질서를 중시하고 남녀차별, 적서차별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가정교육의 가부장제 유지의 틀을 깨고 대신 일원상의 진리가 각자에게 값아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누구나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숙한 인격으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불교의 가정교육의 방법은 心敎, 行敎, 言敎, 嚴敎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진실하고 公心 있고 德 있는 사람으로 기르고자 한 것이다. 원불교 가정교육의 특징은 가정의 개념을 확대하여 공가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사가의 틀을 벗어나 공인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인간을 길러내려 하였으며, 효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지은보은 사상을 통하여 적극적인 보은의 실천으로 전개하도록 교육하도록 한다. 또한 예절교육을 중시하며 과학교육과 도덕교육의 병행을 통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남녀의 차별 없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불교 가정교육의 특징은 한국전통가정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국전통교육이 가지는 정신을 시대에 맞게 제대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원불교교전』, 원불교정화사

『정산종사법어』,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예전』, 원불교정화사

금장태(1991), 「한국유교사상과 소태산사상」, 『소태산대종사탄생백주년기념문집: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익산 : 원불교출판사.

박정훈(1993), 『한울안 한이치에』, 익산 : 원불교출판사.

송 순(1998), 원불교 가정관, 《원불교사상시론》 3, 익산 : 원불교수위단사무처.

한양선 (1997), 원불교 가정교육에 관한 일연구, 《원불교사상》 11 · 12, 원불교사상연구원,

Peter F. Drucker 著 이재규 譯, 『21세기 지식경영』,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9.